

# 나주혁신도시 '배꽃다방'을 아시나요

한전 사옥 1층에 팟캐스트 방송국  
전력노조 본사지부 최철호·조용호씨  
나주 먹거리·전남 관광지 등 소개  
방송 1회당 1000여명 청취 '인기'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한국전력공사 건물 10층 전국전력노동조합 본사지부 사무실에서 팟캐스트 '배꽃다방'을 진행하고 있는 최철호(오른쪽) 위원장과 조용호 위원장. <전국전력노동조합 본사지부 제공>

“메일이나 문서를 벗어나 노조원들과의 다양한 소통채널을 만들고 싶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재미있게 전달하고 싶어서 시작하게 됐는데, 아직은 서툴어서 부끄럽네요.”

빛가람혁신도시로 이주한 한국전력공사 본사 10층에 '다방'이 생겼다. 이름도 나주의 상징을 담아 '배꽃다방'이라 지었다.

'배꽃다방'은 전국전력노동조합 본사지부 최철호(48) 위원장이 조합원 간 소통채널을 위해 만든 팟캐스트(Pod Cast)로, 지난 6월23일 첫 방송을 시작해 지난 달 15일까지 여덟 차례 방송을 송출했다.

오랜 노조활동을 한 최철호 위원장과 '젊은 피' 조용호(38) 전력노조 본사지부 협력안전본부지회 위원장이 호흡을 맞춰 방송 진행을 맡았다.

고등학교때 방송반 경험이 있었던 최 위원장은 자신의 집에 있던 컴퓨터 한 대를 가져왔고, 성능좋은 마이크도 3개를 구입해 작은 방송실을 꾸렸다. 최 위원장은 녹음한 파일을 편집하고 음악을 얹어 방송을 송출하는 '엔지니어' 역할도 동시에 수행한다.

“나주에서 맞는 첫 봄에 배꽃이 활짝 핀 것을 보고 '배꽃다방 이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팟캐스트를 구상하다가 배꽃 못지않은 '배꽃'에, 담소를 나누던 옛스런 추억이 담긴 '다방'을 합쳐 이름을 정했죠.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하자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노조위원장이 직접 일반 노동자들을 위한 법과 제도 등을 쉽게 설명해주고 있다. 일과 가정의 양립 현상과 승진기피 현상 등 사회적 문제도 재밌는 입담으로 풀어낸다. 마치 다방에 앉아 수다를 떠는, 퇴근한 뒤 호프집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편안한 분위기의 방송이다.

특히 한전 본사가 나주로 이주하면서 전국 각지에 나

뉘어 있는 지역별 사업소 근무자들에게 현지 소식을 전하는 '나주 24시' 코너가 인기를 끌고 있다.

“본사 이주 초기에는 모든 직원들이 적응하기가 힘들었어요. 편의·여가시설 등 인프라가 구성되지 않았는데다, 직원들끼리도 서로 정보가 없었죠. 그래서 한전이 나주에 정착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직원들의 여가를 위해 본사 내 동호회와 인근 명소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정지적인 이야기는 다루지 않는다. 사내 동호회들에 대한 소개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여름 휴가철 특집 방송을 만들어 나주 명동거리 등 인근 먹거리와 관광지를 소개했었는데 반응이 뜨거웠다. 여수와 청산도 등 최 위원장이 직접 다녀온 뒤 전해주는 정보가 좋았다는 평가가 잇따랐다.

이들의 방송은 입소문을 타더니 한전 본사를 넘어 전국 각 사업소로 확대됐다. 또 노조 조합원을 넘어 간부급 직원들과 혁신도시 내 다른 기관에서도 애청자가 생겼다. 방송 1회당 다운로드만 400회가 넘고, 많이 들

린 1000여명이 넘게 방송을 접하고 있다. 또 불과 4개월만에 5000여개에 달하는 전체 팟캐스트 가운데 상위 500번째에 오르는 성과를 거뒀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은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죠. 정확하고도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시기에 적절한 관심분야를 찾고, 시나리오도 써야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벌써 '다음엔 뭐하지?'라는 고민을 한다니까요.”(웃음)

최철호 위원장은 “같은 노동자로서 스스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고, 나주에서의 초기 정착을 위해 보다 많은 지역의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며 “자체적으로 제작해 아직은 서툴고 미흡하지만 주변의 칭찬과 격려에 힘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배꽃다방'은 팟캐스트 플랫폼인 '팟빵' 앱을 스마트폰에 다운로드 받아 청취할 수 있으며, 2~3주 간격으로 방송이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 '빛가람 영화관'도 생겼어요



한전, 1000석 규모 운영...매월 두차례 지역민 무료 초대

지난달 22일 나주 한국전력공사 본사는 혁신도시 인근에서 찾아온 주민들로 북적거렸다. 신작 영화를 보기 위해 한전이 운영하는 '빛가람 영화관'을 찾은 이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가족, 친구, 연인과 나란히 앉아 간식을 나눠 먹으며 웃음을 피우던 이들은 영화관의 불이 꺼지자 일제히 영화 속으로 빠져 들었다. 안하무인 재벌 3세를 응징하는 행동과 형사의 동반

서주 활약을 지켜보느라 2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다. 이날 한전 한빛을 빛가람 영화관에서는 시민 1200여명이 함께 웃고 마음 졸이며 영화 '베테랑'을 관람했다.

빛가람 영화관은 지난 1월 '국제시장'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총 13편의 영화를 무료로 상영했다. '암살', '연평해전', '매드맥스 : 분노의 도로' 등 매회 최신 인기

작으로 스크린을 채운 빛가람 영화관은 여느 대도시 복합상영관 부럽지 않은 광주전남혁신도시 최초의 상설영화관이다.

매회 평균 1000여명의 시민이 1000석 규모의 관람석을 가득 메웠다. 자리가 없는 날에는 바닥에 앉거나 관람석 뒤에 서서 영화를 보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나주로 이전한 한전은 직원과 가족의 여가생활, 문화체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빛가람 영화관을 열었다. 한전 임직원뿐만 아니라 시민, 학생, 인근 군부대 장병 등의 관심 속에서 10개월만에 지역의 문화 공감대를 구축하는 기반으로 성장했다. 매달 둘째 주 또는 넷째 주 화요일 오후 6시 40분 문을 여는 빛가람 영화관은 오는 10일부터는 '사도' 상영을 준비하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허성관 해임건의안 내일 채택

광주시의회 '사퇴' 압박

허성관 광주전남연구원장 임명 강행에 반발하고 있는 광주시의회가 3일 원장 해임 건의안을 채택하기로 했다.

1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오는 3일 열리는 제 244회 제2차 정례회에서 허성관 광주전남연구원장 해임 건의안을 채택, '압박 수위'를 높여가기로 했다.

주경남 행정자치위원장은 이날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전 의원이 나서 허 원장의 자진 사퇴와 김수삼 이사장의 즉각 퇴진을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어 해임 건의안을

채택하기로 했다"면서 "원장 해임 건의안 채택을 시작으로, 허 원장 자진 사퇴가 이뤄질 때까지 의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해임 건의안이 채택되더라도 의회가 원장을 해임 할 수 있는 법적지위가 없는 만큼 이번 의회의 해임 건의안 채택은 해임의 결실을 갖고 있는 연구원 이사회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풀이된다.

시의회는 또 4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허 원장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이달 말부터 진행되는 내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광주전남연구원 예산 삭감 등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최권필기자 cki@kwangju.co.kr

# 전남 끝나지 않는 AI... 특단 대책 시급

영암 오리농가 4곳 확진...최근 5년 700만마리 살처분

올 하반기 들어 영암을 중심으로 전남 중부지역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올 들어 지난 6월 10일까지 구례 9건 등 전남에서 27건이 발생한 이후 3개월여만인 9월 14일부터 다시 이 지역에서만 반복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5년간 전남도내 살처분한 오리·닭이 700만 마리에 육박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지난 18일 AI(H5N8형)가 발생한 영암의 한 오리 농가 반경 3km 내에 있는 다른 오리 농가 4곳에서 나온 AI 의심축이 모두 고병원성 AI로 최종 확진됐다"고 밝혔다.

앞서 방역당국은 AI 농가부터 3km 이내를 보호지역으로 설정하고 이동제한과 함께 오리 사육 농가 14곳을 대상으로 일제 검사를 했다. 지금까지 4개 농가에서 추가로 AI 감염이 의심되는 오리가 발견돼 농

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 이 가운데 지난달 30일과 31일 2개 농가에 대한 고병원성 확진 판정이 나온 데 이어 1일 나머지 2개 농가도 고병원성 AI로 확인됐다.

전남도내에서는 올 6월 10일까지 구례(9건), 나주(8건), 영암(6건), 무안(3건) 등 27건의 AI가 발생, 42농가 63만9000마리를 살처분한 뒤 3개월 여 만인 지난 9월 14일 이후 나주 및 강진 오리농장에서 2건, 담양전통시장 및 가동형 식당 2건, 강진 중간상인 1건 등 5건이 연이어 발생, 9농가 4만4000마리를 살처분했다.

최근 5년간 전남도내 120농가에서 AI 발생해 242만6000여마리를, 예방 조치로 인근 215농가의 446만7000여마리를 각각 살처분해 644억원에 달하는 손실보상금이 지급됐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서울서 천경자 화백 추도식...미술계 등 200여명 참석

천경자 화백의 추도식이 지난 30일 오전 서울시립미술관에서 미술계, 문화계 인사와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천 화백의 유족이 주최하고 서울시와 시립미술관이 준비한 추도식은 지난 8월 6일 미국 뉴욕에서 세상을 떠난 천 화백의 영면을 고국에서 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중규 문화유산국민신탁 이사장이 추도위원장으로 나섰고, 김택환 경기도 교수를 비롯해 박우홍 화랑협회장, 유중호 대한민국예술원 원장, 정중현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주준선 고흥군 부군수 등 14명이 추도위원으로 참가했다.

이날 행사는 고인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

해 천 화백의 사위인 문병강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의 약력 소개, 추도위원들의 조사와 추도사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김중규 추도위원장은 조사에서 "고인은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작품으로 한국의 대표적인 여류 화가로 추앙받았다"면서 "육신은 활화산처럼 떠났지만 한평생 보여준 예술세계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남 이남훈 씨는 유가족을 대표해 "저희 유족들은 어머니의 별세 소식이 그저 황망하고 가슴이 저러 어떤 말도 하기 어렵다"면서 "이제 외국 땅에서 더 이상 힘겨워하지 마시고 그토록 그리워하던 한국에서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까지...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광주서석초등학교 출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조선대학교 전남대학교

초혼	추천 회원	재혼
<p>남성</p> <p>의사, 변호사, 의사, 한의사 27~45세</p> <p>편사, 감사, 변리사, 회계사 28~47세</p> <p>공무원(5급~9급) 27~42세</p> <p>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p> <p>상성, 현대, LG 직원 28~47세</p> <p>은행원, 연구원 29~49세</p> <p>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p> <p>사업가, 자영업 29~39세</p> <p>세무사, 연구원 29~48세</p> <p>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p> <p>교사, 교수 28~49세</p>	<p>여성</p> <p>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p> <p>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p> <p>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p> <p>의사, 약사, 교사 25~39세</p> <p>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26~39세</p> <p>공무원(5급~9급) 27~42세</p> <p>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p> <p>간호사, 은행원 26~47세</p> <p>학원(음악)원장, 교사 27~42세</p> <p>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p> <p>미스코리아, 미스전북 27~36세</p>	<p>남성</p> <p>의사, 변호사 32~65세</p> <p>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p> <p>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p> <p>대기업 간부 36~59세</p> <p>회사원, 자영업 33~67세</p> <p>'무술신 여성' 희망 31~58세</p>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면승구 70m 최다면적 B10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고객의 입장에서 공감하며  
전문성으로 만족스런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서명심 변호사입니다.**

형사, 민사, 가사, 행정

사기·성범죄·교통사고  
이혼·재산분할·위자료  
대여금·공사대금·손해배상  
보험금 등 각종 금융사건

**법률사무소 名家 변호사 서명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법원 버스정류소)  
대표전화 062)227-7223 팩스 062)227-7224

**빌려주고 못 받은 돈 회수 해 드립니다.**

(금융위원회 99-7호)

세일신용정보(주)는 국내 각 금융권을 대표하는 새마을금고연합회, 삼성카드, 신한캐피탈, 한국캐피탈, 전북은행이 주주로 참여한 믿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 차용증,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뚜렷한 대안이 없는 경우
- 채무자가 타인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
- 강제집행 등 법 조치를 하고 싶는데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알지 못하는 경우
- 채무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해야 할 때 - 가압류/소송/집행까지 - 전담 법무사와 Non-stop 서비스
- 민사채권, 물품대금, 공사대금, 미수금 등
- 채권회수는 타이밍 싸움입니다.
- 결정을 이루는 사이 채무자는 재산이전, 폐업, 소재불명으로 이어집니다.
- 빠른결정만이 소중한 재산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비용 無 | 착수금 無

영업사원 모집

대표전화 : 062) 531-5990 010-2069-5958

**세일신용정보(주)**